

2011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

- 일시 : 2011년 2월 11일(금) 오후 4시 30분
- 참석자 : 유수훈(운영위원장), 전승우, 김영홍, 박준우, 정란아(이상 운영위원), 최성인(상근자)
- 회의자료
<https://docs.google.com/a/action.or.kr/Doc?docid=0ASUM2fHW7e6lZGR6Nzg3a2pfNjIjZjI1ZHZjNw&hl=ko>

규약 변경안에 대해

- 박준우 :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행동이 그간 자율적으로 해온 재정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약으로 명시하는 것임. 올 해 기부금 단체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하고자 함,
- 만장일치로 정책협의회와 총회에 제안하기로 함

운영위원 충원안에 대해

- 전승우 :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?
- 박준우 : 사전에 얘기가 된 분들도 있고 두 분 정도는 아직 얘기를 못 드렸다. 기존 운영위원 추천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제안이어서 정책협의회를 거친 후 확정 제안할까 한다.
- 유수훈 : 시민행동의 기존 운영위원 추천 원칙은 '일정 기간 각 활동기구에 참여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거친 이후에, 시민행동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'되는 분들로 추천해왔다. 이 분들은 사업단위 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추천 원칙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 회원, 지역, 청년 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리라고 본다.
- 만장일치로 정책협의회와 총회에 제안하기로 함

2011년 사업계획에 대해

재정 및 운영계획에 관해

- 전승우 : 재정 계획이 과도하게 보수적이다. 회원도 월 30명 증가, 후원금도 연간 8천만원 정도는 모금해야 할 것이다.
- 정란아 : 현재 상근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.
- 박준우 : 올 해는 해피빈을 통한 홍보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. 해피빈 모금 목표는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.
- 전승우 : 회원의 날 행사에 기대가 크다. 1년에 한 번 하는 후원회를 매월 소규모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다. 그렇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모금이 가능할 것이다.

- 유수훈 : 모금도 그렇고 사업들의 진행을 위해서도 한 명 정도 총원의 필요성이 보인다. 한 명 정도 총원할 인건비를 고려해서 회원 월 20명, 후원금 약 7천만원을 목표로 하자. 그래서 총 모금액을 2억 정도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.

오늘의행동 및 해피빈에 관해

- 최성인 : 현재 해피빈이 네이버 메인 테마캐스트를 통해 상시 콘텐츠 노출을 할 예정이다. 해피빈 측에서 오늘의 행동 콘텐츠들이 성격에 맞다고 보고 있어 우리와 협의중이다. 세부적인 것은 조정이 필요하지만 네이버 메인에 매우 자주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.
- 정란아 : 오늘의 행동 오프모임은 기획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져보는 것이 어떨겠는지?
- 전승우 : 사무처에서 함께 해줘야 더 힘받고 진행될 것이다.

시민학교 및 나루도서관에 관해

- 박준우 : 의회나 강사진 참여 멤버들을 만나본 결과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. 단, 아직 계획을 수정하지는 못했는데, 시민학교 기획위원장께서 '대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일정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'며 인턴십 중심으로 2~3개월간 진행되는 좀 더 콤팩트한 계획으로 다듬기를 원하고 있다. 또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, 올 해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2~3개의 특정 의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해보려 한다.
- 전승우 : 추진해보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수강생이 안 모이는 사태가 벌어지면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성사시키길 바란다.